

# 하나님 나라의 도구, 용학교회 이야기

박 석 종 (목사, 무안 용학교회)

## 들어가는 말

계간지 『농촌과 목회』 독자 여러분들의 가정 위에 주님의 평화가 함께 하길 바랍니다. 저는 용학교회<sup>1)</sup>를 섬기고 있는 박석종 목사입니다. 저의 농촌목회 경력은 올해로 20년째입니다. 20년은 결코 적지 않는 시간이지만 20년 동안 고작 두 교회를 섬겼을 뿐입니다. 첫 번째 교회는 해남에 있는 마산서부교회인데 12년 3개월 정도를 섬겼고, 두 번째 교회는 7년 2개월째 섬기고 있는 지금의 용학교회입니다. 마산서부교회를 섬겼던 이야기는 『농촌과 목회』 2000년 겨울호의 “마산서부교회와 한울타리 영농조합이야기”를 참고하시고, 여기서는 지금의 목회지인 용학교회 목회 이야기를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섬기고 있는 용학교회는 무안군 소재지에서 22km 정도 떨어진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는 대단히 외진 곳에 위치한 전형적인

---

1) 한국기독교교장로회 소속, 전남 무안군 해제면 해제리 151번지 소재

마을 단위의 교회입니다. 교회의 역사는 83년으로 꽤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는 편이고, 2,800평의 대지 위에 잘 가꾸어진 조경과 함께 한옥 모형으로 교회당이 아름답게 지어져 있습니다. 교인 수는 마을 단위의 교회로는 보기 드물게 장년부만 160여명(세례 교인) 정도 되는 제법 규모 있는 교회입니다. 농촌교회의 보편적 현상 가운데 하나이겠지만 어린이부<sup>2)</sup>와 중고등부<sup>3)</sup>는 거의 없는 실정이고, 장년부도 70% 정도가 70세 이상으로 완전히 노령화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미래가 보이지 않는 교회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러나 저는 농촌교회를 섬기면서 나름대로 분명한 하나의 원칙을 가지고 목회를 해 오고 있습니다.

## 목회의 원칙

요즈음 한국교회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매우 높습니다. 그 이유는 보는 눈에 따라 다양하게 진단할 수 있겠지만 저는 주된 이유로 교회가 세상을 섬기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교회는 교인들만의 교회이지, 세상을 위해 봉사하고 섬기는 교회가 되지 못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목회자들의 교회론에 대한 부채 때문에 생긴 결과입니다. 그래서 저는 철저히 하나님의 선교(Missio Dei) 신학의 입장에서 교회를 바라보고 목회를 합니다. 하나님의 선교란 선교의 주체가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고백에서 출발하는데, 이는 기존의 교회론에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선교에서 교회는 더 이상 선교의 주체가 아니라 선교의 도구일 뿐입니다. 중요한 것은 교회가 아니라 선교입니다. 선교를 위해 교회가 존재하는 것이요, 따라서 교회는 선교 중심적 교회가 되어야만 합니다. 그러나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너무 선교에

2) 어린이부는 10여명으로 유치부 아이들이 대부분이다.

3) 중고등부는 총 10명도 되지 못하여 거의 활동을 하지 못하고 있다.

대해 무관심 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저는 이런 점을 매우 안타깝게 여기면서 교회를 철저히 선교하는 교회로 만들어야 한다는 원칙을 가지고 지금까지 목회를 해오고 있습니다.

교회를 이렇게 선교하는 교회로 만들어 가기 위해서는 지금 교회의 모습과 틀로는 선교의 사명을 제대로 감당할 수 없습니다. 오늘 농촌교회 조직은 대부분 공동의회, 당회, 제직회, 구역 정도인 교회가 많습니다. 몇 개의 부서가 있는 교회도 있지만 거의 유명무실합니다. 목회자의 노력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대개 이런 조직으로는 어떤 선교적인 과제도 제대로 수행할 수 없습니다. 그러기에 구체적인 선교과제별 위원회가 필요합니다. 우리 용학교회는 과제별로 다섯 개의 위원회가 있습니다. 복지선교위원회, 문화선교위원회, 환경선교위원회, 생명농업위원회, 교회와사회위원회가 바로 그것입니다. 여기서는 각 위원회별로 저희 교회가 하고 있는 일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회별 선교활동

### 1) 복지선교위원회

#### (1) 노인대학

7년 전, 지금의 교회에 부임하였을 때 교회에서는 복지선교에 대해 대체적으로 두 가지 방향에서 논의되고 있었습니다. 하나는 짬질방을 짓자는 것이었고, 다른 하나는 집을 여러 채 지어서 홀로 계신 노인들을 모시자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둘 다 비용이 많이 들뿐만 아니라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판단에서 우선 적은 비용으로도 할 수 있는 것부터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가장 먼저 시작한 것은 농촌에 노인들이 많은 것에 착안하여 노인대학부터 시작하였습니다.

노인대학은 주 1회 실시하고 있는데 굉장히 반응이 좋습니다. 출타하신 분들이 노인대학에 빠지지 않기 위해 전날 고향으로 돌아오실

정도요, 노인대학에 참여하기 위해 새벽부터 일어나서 그날 해야 할 일들을 모두 해치울 정도입니다. 노인대학은 매주 100여명의 노인들이 금요일 오전 10시에 모여 1시간씩 각 반별로 특별활동<sup>4)</sup>을 한 후, 다시 전체가 모여 30분은 명사<sup>5)</sup>를 초청하여 강의를 듣고, 1시간 동안 즐거운 놀이시간<sup>6)</sup>을 갖습니다. 그리고 자원봉사자<sup>7)</sup>들이 정성껏 준비한 점심을 먹는 것으로 노인대학의 하루 일과가 끝이 납니다.

특히 노인대학 강사로 군수를 초청한 것이 계기가 되어 지금은 군으로부터 재정 지원을 받아 운영되고 있는 노인대학이 무안군에 20개소에 이르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용학교회의 노인대학이 무안군의 노인친국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노인대학의 산실이 된 것입니다. 지금은 무안군에서 1년에 천만원 이상의 재정을 뒷받침 해주고 있어 어려움 없이 노인대학이 운영되고 있으며, 금년에는 군의 전폭적인 재정 지원을 받아 노인대학 연합회 행사로 2,200여명의 노인들이 모여 축제를 갖는 성과도 거두었습니다.

노인대학의 효과는 무엇보다 노인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주고, 노년의 삶을 더욱 보람 있게 해준다는 측면도 있지만 교회의 입장에서 보면 교회의 대외적인 이미지를 크게 개선시켜주는 효과도 있습니다. 말하자면 노인들이 교회를 적극적으로 홍보해 주어서 교회가 지역사회에서 좋은 이미지를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목회자가 마을을 심방할 때도 노인대학 학생들의 적극적인 도움과 호응이 있어 마음 편하게 심방을 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

4) 특별활동으로는 레크레이션, 게이트볼, 종이접기, 컴퓨터, 풍물, 한글교실 등이 운영되고 있다.

5) 명사는 군수를 비롯하여 도의원, 군의원, 면장을 비롯한 각급 기관장들이나 목사님들이 맡는다.

6) 강사료를 주고 매주 놀이강사를 초청한다. 주로 국악, 노래, 레크레이션, 요가, 에어로빅, 한 춤, 등 다양한 강사들이 초청된다.

7) 자원봉사대는 4명씩 4조로 편성되어 매주 한 개조씩 돌아가면서 식사를 준비한다.

## (2) 밀반찬 배달

농촌에는 홀로 살아가는 노인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아무리 늙어도 할아버지, 할머니가 함께 살아가는 가정은 그래도 식사를 거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독거노인들의 경우는 식사를 거르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그래서 독거노인들이나, 노인성 질환(중풍, 치매) 등으로 몸을 제대로 움직이지 못한 노인들을 대상으로 매주 1회씩 약 30가정의 밀반찬<sup>8)</sup>을 배달해 주고 있습니다. 농촌에 일손이 부족하다보니 따로 반찬을 준비할 수가 없어 매주 자원봉사대가 노인대학 식사를 준비할 때 밀반찬까지 함께 준비하도록 합니다. 경비는 외부의 지원<sup>9)</sup>을 받을 수도 있겠지만, 자칫 사업이 될 수 있다는 판단에 교회의 재정으로 모든 것을 충당하고 있습니다. 밀반찬 배달도 역시 지역사회에서 교회의 이미지를 크게 개선시켜 줌과 동시에 무안노인복지센터의 입소 대상자를 발굴하는데도 크게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 (3) 무안노인복지센터

2005년도부터 노인복지선교를 보다 체계적으로 하기 위해 전문가를 불러 컨설팅을 받고, 또한 교회의 지도자들과 함께 다양한 선진지를 답사하였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큰 틀로는 재가복지<sup>10)</sup>, 재가복지 가운데서는 주간보호와 가정봉사과건센터<sup>11)</sup>를 하기로 결정하고 군에 신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군청 실무자가 방문하여 주간보호<sup>11)</sup>는 추후로 연구해 보고, 먼저 가정봉사과건센터<sup>12)</sup>를 할 수 있도록

---

8) 반찬은 매주 3찬으로 준비하되, 부족하지 않게 넉넉하게 준비한다.

9) 사랑의 열매나 마사회 등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곳이 많다.

10) 당시 재가복지는 세 가지 사업이 있었다. 단기보호와 주간보호와 가정봉사과건센터가 바로 그것이다. 그러나 단기간 보호를 해야 하는 단기보호는 시설이 갖추어지지 않아 현실적으로 하기가 어려웠다. 하지만 60평의 교육복지관을 갖고 있는 우리는 주간보호나 가정봉사과건센터를 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11) 우리 교회의 교육복지관이 주간보호를 하기에는 시설이 미흡하다고 판단하였다.



### 무안노인복지센터 준공식

지원해 주겠다고 약속하였습니다. 그러나 뜻하지 않는 암초를 만나게 되었는데, 군과 도의 재정상황이 좋지 않아 금년에는 재정 지원이 어렵다는 것입니다. 결국 2005년도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고, 2006년도에 다시 주간보호와 가정봉사파견센터를 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하던 중 단기보호와 주간보호와 가정봉사파견센터를 종합적으로 할 수 있는 재가복지시설<sup>13)</sup>이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농촌형 재가복지시설 신청서를 제출하게 되었는데 기적처럼 확정되어 2007년 가을부터 공사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지방비를 포함하여 3억 4천 정도의 국가의 지원을 받았고, 우리교회가 나머지를 부담하여 4억의 예산을 들여 2층 건물로 107평의 재가복지 시설을 신축할 수 있었습니다. 2008년 7월에 설치 신고를 완료하

12) 가정봉사파견센터는 10평의 건물만 가지고 있으면 가능하였다.

13) 농촌형 종합재가복지시설이 신설되었는데 단기보호, 주야간보호, 가정봉사파견센터 모두를 할 수 있었다.

여 현재 운영 중에 있는데 원장을 비롯하여 10명의 유급 직원이 단기 보호 7명, 주야간보호 9명, 방문요양 14명을 돌보고 있습니다. 현재는 단기보호 대상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여서 복지관 증축의 문제를 고민하고 있으며, 재가복지의 한계를<sup>14)</sup> 극복하기 위해 요양원이나 그룹 홈 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 (4) 노인건강증진서비스

노인건강증진서비스는 완전한 용학교회의 프로그램은 아닙니다. 그러나 노인들의 건강을 증진시켜 질병을 사전에 예방하자는 측면으로 전라남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을 광주건강관리협회가 획득하여 우리 교회의 교육관을 이용하여 실시하고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노인대학이 잘 되고 있음을 알고 노인대학 학생들을 대상으로 건강증진서비스 프로그램을 실시하기 위하여 우리 교회에 요청을 해온 것입니다.

노인건강증진 서비스는 일주일에 두 번씩<sup>15)</sup> 모여 2시간씩 건강증진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노인건강증진 서비스 프로그램에서는 목욕권을 무료로 나누어 주고 있는데, 이로 말미암아 노인들이 매주일 한 번씩은 반드시 목욕을 하기 때문에 깨끗하고, 건강도 좋아지고 있어 많은 노인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월 1회 정기적으로 무안군 보건소 차량봉사대에 참여하고 있으며, 한시적으로는 장애인종합복지관 반찬배달과 차량봉사를 함으로 지역과의 끈끈한 연대도 계속적으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 2) 문화선교위원회

### (1) 정월대보름축제

문화선교위원회는 농촌에서도 점차 확산되고 있는 향락적이고 퇴

---

14) 단기보호 대상자를 6개월만 돌볼 수 있음.

15) 매주 화요일과 금요일에 모인다.

폐적인 문화를 일소하고 지역 문화를 건강하고도 공동체적 문화로 바꾸기 위한 목표로 활동하고 있는 위원회입니다. 문화선교위원회에서는 2004년도부터 매년 정월대보름 축제를 갖고 있습니다. 1회부터 3회까지는 교회가 주관하고 장소도 교회 앞마당에서 정월대보름 축제를 가졌으나 지금은 이장 협의회가 주관하고, 장소도 근처 초등학교의 운동장에서 갖고 있습니다. 이는 불신자들의 장소에 대한 거부 반응을 해소하기 위한 목적도 있지만 무엇보다 장소가 비좁을 정도로 호응이 높아 그만큼 넓은 장소가 필요하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작년까지는 교회에서 예산을 전적으로 책임졌지만, 금년부터는 군에서 모든 재정을 지원받고 있습니다. 이제 교회는 후원자의 입장에서 주최 축을 돕고 있을 뿐입니다. 6회째 진행되고 있는 정월대보름 축제는 이제는 명실상부하게 우리 지역의 새로운 축제로 자리매김하고 있으며, 매년 500명 정도의 지역주민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 (2) 사물놀이패

현재 두 개가 사물놀이패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젊은 층이 중심이 되고 있는 사물놀이패는 교회를 대표하면서 성탄절 등 교회의 행사나 각종 축제의 현장에서 분위기를 조성하는 역할을 하고 있고, 노인 학교에서 운영하고 있는 사물놀이패는 노인들의 축제 현장에서 주로 발표회를 갖는 형식으로 한시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무안군은 노인천국을 지향하다가 보니 노인축제가 많아지고 있고, 그러다보니 자연스럽게 노인학교 사물놀이패들의 발표도 점차 많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 (3) 게이트볼<sup>16)</sup>

우리 교회의 다양한 선교활동 가운데서 가장 취약한 부분이 게이

---

16) 게이트볼은 문화선교위원회의 영역이 아닐 수 있다. 하지만 우리 교회에서는 역할이 한쪽으로만 편중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편의상 문화선교위원회에서 게이트볼의 책임을 맡고 있다.





민속대축제 행사 중 오자미 던지기 하는 주민들

트볼입니다. 군 예산으로 매우 훌륭한 게이트볼장이 지어졌는데도, 좀처럼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게이트볼이 활성화되지 않는 이유는 농번기철은 워낙 바쁘기<sup>17)</sup> 때문이고, 농한기철은 휴게실이 없어 워낙 춥기 때문입니다. 이곳은 그 어느 지역보다 바람이 많은 곳입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해야 할 급선무는 바람막이와 휴게실 마련입니다. 게이트볼장이 따뜻하고 휴게실이 마련되기만 하면 어느 곳보다도 게이트볼이 활성화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습니다. 복지관에서 얼마든지 식사나 간식을 준비해 줄 수 있는 여건이 되기 때문입니다. 바람막이와 휴게실을 마련하여 연중 무휴로 게이트볼을 즐길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 앞으로 우리 교회의 선교 과제입니다.

### 3) 환경선교위원회

환경선교위원회에서는 창조질서 회복운동을 목표로 용화교회 10

17) 전국에서 가장 일이 많다고 할 정도로 밭이 많다. 그러다보니 겨울철 잠깐 동안만 농한기철이다.

대 환경수칙<sup>18</sup>)과 66가지 창조세계보존수칙을 만들어 생활화하고 있습니다. 매년 아나바다 장터가 계획되기는 하지만 물품의 부족으로 단 한 차례만 열렸을 뿐입니다. 아나바다 장터는 도시교회와의 연대가 절실히 필요한 실정입니다. 또한 교회에 쓰레기 분리수거함을 설치하여 쓰레기 분리수거를 생활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복지관의 전기세가 겨울철이면 매월 백만 원 이상이 들고 있기 때문에 교회 안의 모든 시설들(복지관, 사택, 교회당, 교육관, 황토방)이 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태양열 설치를<sup>19</sup>) 연구하고 있는데, 에너지를 절약하고 게이트볼장의 바람막이가 될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비용이 많이 들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 4) 생명농업위원회

생명농업위원회는 제초제나 농약과 화학비료를 사용하지 않음으로 땅을 지키고, 품질과 맛과 안정성을 담보로 경쟁력 있는 농산물을 생산하기 위해 활동하고 있는 위원회입니다. 교인들로만 구성된 영농조합법인 '해뜰 공동체'가 중심이 되어 활동하고 있는데, 해뜰 공동체는 6년 전에 조직되어 공동으로 농업자재를 만들어 사용하고 있으며, 유기농 농산물 인증을 받아 공동으로 쌀을 비롯한 다양한 농산물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생산-가공-유통을 전적으로 책임지지 못하고 있으며, 아직도 그 활동은 미비한 편이어서 생명농업이 교회 전체 대중들로 확산되지 못하고 있는 것은 매우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농촌개발 사업에 뛰어들기 위해 여러 선진지를 견학하였으

---

18) ① 일회용품 사용하지 않는다 ② 쓰레기를 분리수거 한다 ③ 물이나 전기 등 자원 절약을 생활화한다 ④ 수질을 오염시키는 합성세제의 사용을 줄인다 ⑤ 바다를 오염시키는 폐수를 버리지 않는다 ⑥ 토양을 오염시키는 제초제나 화학비료의 사용을 줄이고 친환경농업을 실천한다 ⑦ 빈 공간에 나무를 심는다 ⑧ 외국농산물을 절대 먹지 않는다 ⑨ 검소한 생활을 한다 ⑩ 환경지킴이 활동을 생활화한다.

19) 복지관에는 태양열 설치비용의 80%가 지원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만치 않는 비용이 소요된다.

나 아직 뚜렷한 성과는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 나가는 말

7년 동안 나름대로 몸부림친다고는 했지만, 막상 기록으로 남길만한 것들은 별로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일상적으로 진행된 목회활동은 지면상 생략하였고, 여기서는 주로 과제별 선교위원회에서 하고 있는 일들을 중심으로 소개하였습니다. 아마 부족하게 보인 부분도 많을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가 강력하게 하나님 나라의 도구로 쓰임 받기를 꿈꾸는 저와 우리교회의 노력은 언젠가 결실을 맺게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부디 독자들이 섬기는 교회도 하나님 선교의 도구로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기를 기도하겠습니다. 世農